

GSK, AI 백신 임상시험 효과 입증

BBC, 2007년까지 대량생산 가능 ... Sanofi보다 소량 불구 효과는 탁월

영국의 제약기업 GSK(Glaxo Smith Kline)이 개발한 인체용 조류 인플루엔자(AI)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BBC 인터넷판이 7월26일 보도했다.

유럽 최대 제약기업인 GSK는 2007년까지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은 벨기에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3.8 μ g 소량을 2회 투여받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보였다.

임상시험 대상자 중 대다수인 80%가 백신의 효과를 보였다.

GSK는 전 세계 수백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백신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량의 항원 혹은 활성성분으로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제약기업 Sanofi Aventis는 자사의 AI 백신이 7.5 μ g을 2회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임상시험 대상자 중 50%만이 Sanofi Aventis 백신의 효과를 보였다.

GSK는 백신의 효능을 증진하기 위한 독특한 첨가제 덕분에 자사 제품이 다른 경쟁기업 백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GSK는 2007년 초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과 저장을 위해 자사 백신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바이러스 중 가장 치명적인 종인 H5N1은 아시아에서 급속히 퍼졌으며, 2003년 이래 231명의 감염자와 133명의 사망자를 냈다.

전문가들은 AI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형태로 변이를 일으킬 경우 전 세계 수백만명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유행성 독감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28>